



사진제공 · 박재현

목회

현장

영혼을 낚는 어부들

‘오지 관문도시’ 선교사의 행복

40년간 선교사가 없는 도시 리오아차. 나는 이곳의 유일한 동양인이자, 외국인이고 선교사다. 코로나 때도 치안이 미치지 않았을 정도의 ‘오지’에서 사역하는 이유는 가장 효율적이며 경제적으로 선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날마다 행복으로 이끄는 나의 선교를 말한다.



GMI 파송 콜롬비아 선교사이다.

모든 일이 그렇듯 어찌 어려움이 없겠냐마는 오지에서의 10년 선교는 한마디로 ‘행복’했다. 나 하나 오지에서 조금 불편하게 살면 수많은 빈민촌과 난민촌의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배부르며 구원까지 얻으니 너무나 보람되고 행복하다. 선교사가 되길 참으로 잘했다.

지난 10년 사역의 행복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이고, 이 행복은 선교사가 중복되지 않는 희소성·가성비 사역, 즉 ‘오지 관문도시’ 선교이기에 가능한 것임을 지면을 통해 말하고자 한다.

선명한 주님의 때와 이끄심

선교의 부름은 청년 때, 서빙고 온누리교회의 ‘경배와찬양’ 5개월 헌신자 훈련에서였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사역의 내용 대부분은 대전 침례신학대학원에서 선교학 석사(이현모 교수) 과정을 거치면서 배운 기초적인 것들이다.

1) ‘선교가 필요한 오지에 선교사는 없고 인구가 많은 곳’을 말한다.

신학 공부 후 이런저런 일로 파송을 주저하다가 중년이 되어 더는 미룰 수 없을 때에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강하게 받았다. 25년 전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받은 부르심을 25년이 지나서 동일한 장소의 금요 기도회에서 강력하게 받았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교목을 사직하고 기적적으로 만난 것이 파송 단체인 은혜국제선교회(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GMI)²⁾다. 한 번도 미국을 간 적이 없는데 GMI의 훈련과 파송을 위해 미국에 갔다.

파송 초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현지인 집의 방 한 칸에서 시작했다. 자취가 언어 사역에 유리하다고 생각했고, 주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재정은 때가 되면 주어질 것이라고 믿어서 낙심한 적은 없다. 그러나 당시의 자취 생활을 추억해 보면 다시는 못할 것 같다.

2년을 현지인 집에서 살았기에 선교지의 문화와 언어를 빠르게 배울 수 있었다. 언어 사역이 만 2년이 되던 날, 항상 그렇듯 카리브 바다를 보며 기도할 때였다. 오지에서 갈 곳도 없어 매일 석양을 보며 기도했는데 그날 주님이 ‘이제 사역의 때다’라는 감동을 주셨다. 그 후 4개월 동안 여러 다른 곳에서 사료차와 학교 부지, 아파트 월세와 살림살이 및 교실 건축의 헌금이 주어졌다. 이에 원칙에 따라 현지인들이 사역하지 못하는 빈민촌·베네수엘라인 난민촌에 부지를 매입하고 교실을 건축하며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다.

선교 원칙에 따라 시행한 사역

사역은 처음부터 대전 침신대에서 선교학을 공부하며 형성된 아래 원칙에 따라 진행했다.

- ① 선교지는, 신속한 세계 선교를 위해 선교가 필요하나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서 살고 사역한다.
- ② 선교사역은, 현지인 교회 자립이 궁극적 선교 목적이므로 외국인 선교사만이 가능한 사역을 한다.
- ③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 처음부터 장차 은퇴 후

2) 은혜국제선교회(GMI)는 주님의 지상명령(마 28:18-20)을 이루기 위한 예수교 장로회 보수합동 국제총회 소속의 초교파 선교회이다.



상: 일상생활 / 하: 플라스틱을 수집하는 가족들



상: 쓰레기를 수집하는 학생들 / 하: 베네수엘라 난민촌

사진제공: 박재현

- 사역을 위임받을 현지인을 찾아 동역한다.
- ④ 사역의 재생산을 위해, 이미 현지인 교회가 많은 중남미에서는 현지인 교회의 자립에 방해되는 목회·구호(궁핍)·건축보다는 교육 사역을 주 사역으로 한다.
 - ⑤ 언어는, 가장 중요하므로 최초 2년 이상은 사역하지 않고 언어 공부에 집중한다(2년을 현지인 집 방 한 칸에서 자취를 하고 버스와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다니며 그들의 언어와 문화, 사회를 배웠다).
 - ⑥ 먼저 후원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필요한 액수에 대해서도 묻기 전에는 언급하지 않는다.
 - ⑦ 후원 교회와 후원자들을 위해 매일 중보기도하고 매년 감사의 선물을 드린다(선교사는 받기만 한 다라는 인식이 싫다).
 - ⑧ 선교는 기도와 체력이 중요하므로 열심히 기도하고 운동한다(선교사들의 병치레 기도 제목이 싫었다).
 - ⑨ 오지의 선교사일수록 내외면적으로 더 행복하고 멋있게 사역하자(선교사의 촌스럽고 가난한 모

습보다 문화에 뒤떨어지지 않고 밝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이 선교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진행된 사역을 쉽게 이해하려면, 다음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

- ① 왜 선교국이 '콜롬비아'인가?
- ② 왜 선교지가 리오아차(Riohacha)인가?
- ③ 왜 차세대 사역을 하는가?

먼저 '왜 콜롬비아인가?'에 대해 답하면, 콜롬비아는 세계에서 인구 대비 한인 선교사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인구가 5천만 명인 콜롬비아에 10여 가정의 한인 선교사만 수도와 인근에 거주한다. 이는 마약과 내전 등 나쁜 소문 때문이다. 그래서 콜롬비아이다.

둘째로, 왜 리오아차여야 할까. 리오아차는 수도 보고타에서 너무나 먼 곳이었으나 주님이 감동을 주셨고 40년간 선교사가 없었던 곳이다. 중남미는 교회 성장 추수 지역이므로 수도와 대도시에는 현지인 교회가 많고, 외국인 선교사는 '현지인 교회의 자립을 위해

회사와 장사꾼이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
이윤을 남기듯
교회도 복음을 들을
선교사 대비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지원하면
훨씬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지 관문도시’에는 사람과 아이들이 엄청 많고 적은 돈으로 대도시보다 훨씬 효율적인 사역이 가능하다. 더구나 선교사들이 없어서 현지인들에게 환영받는다. 그야말로 오지 관문도시 선교는 희소성이 높고 가성비가 좋은 사역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랑과 열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박재현 선교사 | 월간목회 2025년 9월호

서 떠남'이 좋다.

반면, 경제력이 낮은 오지의 주요 도시에는 인구가 많음에도 가난이 주는 삶의 불편함 때문에 선교사가 없어 현지인 교회에 교육과 교리적 문제가 많다. 특히 리오아차는 콜롬비아 내에서 어린이 기아 사망률이 시리아 내전의 난민 수준(23년 KBS 보도)일 만큼 가난한 지역이고, 중남미 최대의 이슬람 포교센터가 시아파·수니파 모스크와 함께 있고, 5개 부족의 미전도 종족 인디언이 최소 1백만 명 이상 사는 지역이다. 그러나 외국인 선교사는 지난 40년간 단 한 명도 없었다. 필자는 인근 3시간 거리 이내 거주자 3백만 명 중 최초의 동양인이자 선교사이며 40년 만에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유일한 외국인 선교사다. 그래서 '리오아차다'.

마지막으로 '왜 차세대 사역인가?'에 답하겠다. 처음부터 차세대 사역을 계획한 것은 아니다. 2년 언어 사역 후 '이제 사역의 때'라는 기도 응답이 있었고 교실 건축에 필요한 목적 현금을 받았다. '현지인이 사역하지 못하고 외국인 선교사만이 가능한 선교' 원칙에 따라 위험한 빈민촌과 난민촌에 땅을 사고 목적 현금에 따라 교실 2칸을 지었는데 아이들이 구름같이 몰려왔

다. 왜냐하면 이곳에 있는 베네수엘라인 난민촌과 콜롬비아 빈민촌에는 2천여 가정이 모여 사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이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아이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복음과 학습에 반응하는 아이들 약 백 명만 추려 집중했다.

멈추지 않은 교육 사역, 그 열매

코로나 3년 동안에도 빈민촌과 난민촌 어린이 수업은 멈추지 않았다. 코로나가 왔을 때 도시 전체에 아예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노약자들은 초기에 모두 사망했고 금방 집단 감염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멀쩡했다.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은데 모든 학교와 사회 프로그램을 금지했다. 이를 두고 볼 수만 없었다. 다시 어린이 수업을 진행했고 코로나에 면역된 믿음의 현지인 청년들이 교사로 헌신했다. 경찰 치안이 닿지 않는 지역이라서 별다른 제지 없이 모임을 지속할 수 있었고 아이들은 좋아했다. 이것은 도시 전체에서 거의 유일한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다. 필자 역



사진제공 · 박재현

상: 2019년 첫 건축 / 하: 2019년 건축 후 현재 '꿈들의 집'

상: 건축 중인 보육원 '기쁨의 집' / 하: 강당에 모인 전교생

시 코로나 기간 중 아이들과 안고 입 맞추며 인사하다 보니 여러 번 감염되었으나 감사하게 그냥 끄꿍 앓은 후 부작용 없이 치료되었다.

처음 어린이 수업을 시작하고 3년 동안은 철조망이 담장이었다. 도둑이 많은 이곳에서는 담장을 먼저 지어야 했으나 그럴 만한 재정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계속 몰려들어 또 교실을 짓다 보니 3년 동안은 철조망 넘어 안이 훤히 보인 채 지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 학생은 물론 도둑들도 언제나 자유롭게 출입했다.

예배실과 강당은 한국의 한 보육원장과 보육원생들의 도움으로 건축할 수 있었다. 3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가지 못해서 모은 헌금 4천만 원을 이렌드를 통해 후원해 주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도움으로 고아원 건축을 시작할 수 있었고, 현재는 학교 '꿈들의 집' 옆에 보육원 '기쁨의 집' 3층 건물을 공사 중이다.

세계 복음화, '오지 관문도시 선교'가 답이다

교회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간

단하고 쉽다. 교회가 '정말'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원한다면 '오지 관문도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를 우선 지원하든지, 후원 선교사에게 오지 관문도시에서 사역하도록 요구하면 된다. 그러면 많은 선교사가 오지를 찾아가고 것이고 수도와 대도시에서 여러 선교사가 파송되어 경쟁하거나 헌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대도시에서는 현지인보다 3~10배 이상의 생활비가 더 소비되는데,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을까. 회사와 장사꾼들은 수요가 많은 곳을 찾아 이윤을 남긴다. 교회도 선교사 대비 복음을 들을 인구가 많은 곳을 찾아 지원하면 훨씬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다. '오지 관문도시'에는 사람과 아이들이 엄청 많고 적은 돈으로 대도시보다 훨씬 효율적인 사역이 가능하다. 더구나 선교사들이 없어서 현지인들에게 환영받는다. 나 역시 현지인 집에서 자취로 선교를 시작했으나 땅을 매입하고 건축도 하고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은 오지 관문도시 사역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오지 관문도시 선교는 그야말로 희소성이 높고 가성비가 좋은 사역이다.

대형교회와 선교 단체 사역의 바탕은 프로그램이



상: 스스로 수업을 준비하는 아이들 / 하: 수업 시간

아니라 사랑과 열정이어야 한다. 선교사가 우리를 대신해 외국에서 희생한다는 빛진 마음과 사랑의 열정이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후진국이 대부분인 선교지의 현지인 사역자는 한국인 선교사보다 성실하지 못하며 투명하지 않다. 선교의 궁극적 목적인 현지화도 한국 선교사와 함께 진행해야 성공한다.

이곳 리오아차의 빈민촌과 난민촌의 수천 채의 집은 한국전쟁 직후에 볼 수 있었던 판자집이나 양철집 같다. 상하수도 없어서 물을 사야 하고 어쩌다 비가 오면 오물이 거리에 넘친다. 전기는 정부의 묵인으로 전선을 빼서 도둑 전기를 사용하는데, 그마저도 전압이 낮아 전구가 깜빡깜빡한다. 속이 하나도 없는 모닝빵을 받기 위해 4백 명의 아이가 35도 피약별 아래 1시간을 서서 기다린다. 어른들도 혹시 자신의 뒤통이 있지 않을까 바라고 기다릴 만큼 극빈 지역이다.

그러나 주 사역이 교육이기에 수많은 아이 중 복음과 공부에 반응하는 아이 80명을 추려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들 80명에게 집중적으로 비타민과 음식, 구충제와 학습 자료를 지원한다. 모든 사람과 아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학업에 반응하는 이들을 선별하여 지원한다.



사진제공 · 박재현

상: 어린이 제자훈련 / 하: 성경 세미나

이들의 영혼을 흠치는 중남미 최대의 이슬람 센터와 모스크가 포교 활동하고, 5개의 미전도 종족 백만 명이 살며, 3시간 이내 3백만 명이 거주하는 곳에 40년간 선교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필자는 유일한 선교사이며 최초의 동양인 거주자이자 선교사이기에 환영받는다. 대도시보다 훨씬 적은 헌금으로 많은 이가 만족해하는 사역을 하니 보람되고 행복하다. 항상 35도 내외의 더위와 갈 곳 없는 오지지만 집에는 인터넷이 되고 동네에는 헬스장이 있으니 사는 것이 불편하긴 해도 최악은 아니다.

빈민촌과 난민촌에서 공부하는 '꿈들의 집' 아이 중 일부라도 기독교교육으로 가난의 세습을 끊고 극빈층을 벗어난 기독교인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아이 중 몇이 대학을 졸업해 이곳에서 교사로 일하게 되는 것을 꿈꾼다.

미국 선교사의 도움으로 공부한 김장환, 이동원 목사님처럼 이곳에서 단 두 명의 큰 목회자가 나와 수많은 이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선교사로서 필자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다고 고백할 수 있을 것 같다.🙏